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항만연구본부	성명	김세원	직급	부연구위원
				김가현		전문연구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관련사업 (예산항목)	- 「탄소중립 항만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차」(수탁) (사업기간 : 2023.05.17 ~ 2024.05.15.) - 「아·태지역 개도국과 항만분야 협력 강화 및 기업진출 지원 연구용역」(수탁) (사업기간 : 2023.04.26. ~ 2024.02.09.)					
출장기간	■ 김가현 : 2023.10.25(수) ~ 2023.10.28(토) (2박 4일) ■ 김세원 : 2023.10.25(수) ~ 2023.10.31(화) (5박 7일)			출장지	태국 (방콕)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10.25(수)	부산(07:05) → 방콕(21:45)	항공 이동			KE1406, KE0651(김가현)
		부산(18:30) → 방콕(21:55)				LJ0011(김세원)
	10.26(목)	Chatrium Hotel Riverside Bangkok	(오전) 12차 APSN((APEC 항만 서비스 네트워크) 자문위원단 회의 참석 (오후) 15차 이사회 회의(Open session) 참석			-
	10.27(금)	Chatrium Hotel Riverside Bangkok	(오전) 15차 이사회 회의(Closed session) 참석 (오후) APSN 사무국면담			-
		방콕(23:30) → 인천(+1 06:55)	항공이동(김가현 방콕출발)			KE652
	10.28(토)	인천(08:25) → 부산(09:30)	항공 이동(김가현 부산도착)			KE1407
	10.30.(월)	UNESCAP	(오전) UNESCAP 관계자 면담 (오후) 제6회 UNESCAP 오션데이 참석			BX726
		방콕(22:50) →	항공이동(김세원 방콕 출발)			
	10.31.(화)	→ 부산(06:10)	항공이동(김세원 부산 도착)			
출장성과	○ 출장목적 달성 정도 - (APSN) 코로나팬데믹 이후 첫 대면회의 참석을 통해 글로벌 해운항만 환경변화에 따른 APSN 각 회원국의 최신동향과 대응방안 상호 공유, 향후 APSN 항만연구센터와 연구 협력을 위한 네트워킹 구축 - (UNESCAP) 해운분야 미래 친환경 이니셔티브에 대한 공감대형성, UNESCAP을 중심으로 GLC(Green Logistics Corridor) 이니셔티브 형성을 위한 계획 논의를 통해 KMI-UNESCAP 협력기반 강화 및 제6회 오션데이 주제발표를 통한 KMI 대외 인지도 제고 ○ 주요 성과 - (APSN) 참여국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관련정보 공유 및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 회원국 들로부터 협조가 필요한 업무, 확보가능한 자료 등이 요구(도움)되는 프로젝트 수행 시 APSN 활용 기대 - (UNESCAP) 아·태 지역 항만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항만개발의 조화를 위한 논의의 장 마련 및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사례 공유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 성과 공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해양수산부의 APSN 이사회 참석을 위해 해양수산부 담당과(해운정책과) 공유 예정 ○ 정책화 등 활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ESCAP, 해양수산부와 차년도 공동세미나 모색(GLC 관련 주제)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없음

* 주요업무 수행 결과 별지 작성 후 첨부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div> <div>■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div> <div>□ 국제행사 주최</div> <div>■ 국제행사 참가</div> </div> <div> <div>■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div> <div>□ 세미나, 교육, 훈련</div> <div>□ 기타 ()</div> </div>
업무①	10.26.(목) 오전(09:00~12:00) 12차 자문위원단 회의 참석(Advisory Board Meeting)
수행계획	<div>□ 주요 의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EC 회원국 무역 및 경제 발전 동향, 포스트코로나 시대 APEC국가별 항만분야 개발 현황, 2024년 APSN 포럼 주제 선정, APSN 참여국 협력강화 방안 등
수행결과	<div>□ 12차 자문위원단 회의(Advisory Board Meeting)</div> <div>■ 참석자: 한국(KMI 김세원 부연구위원, 김가현 전문연구원)외 APEC 회원국(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APSN 자문위원회 위원, Sonya Read APSN 이사회 의장 대행, Li Qing APSN 사무총장 대행, Bui Van Quy 자문위원회 의장 등</div> <div>■ 주요내용</div> <div>○ APEC 주요 회원국 경제 및 무역 동향</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 세계 경제 침체와 중국 회복세 둔화 등으로 인해 '23년 1~9월 컨테이너 물동량 전년대비 15% 감소, 콰이칭터미널 처리량은 16.1% 감소한 833만 TEU - (한국) 한국 무역의존도 70%, 국내수출입화물 99.8% 항만에서 처리, 국가산단 44개중 20개가 항만지역을 포함하거나 항만과 인접, 전국항만물동량은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한 756만TEU, 경제성장률은 23년 1%대, 24년은 2.2% 전망(한국은행), 향후 20년간 최대 12개 항만에 350억 달러 이상 투자 예정 - (싱가포르) 글로벌 경제 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중국의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수출(특히 전자제품)이 악화되면서 연쇄적인 영향을 받고있음, 그러나 아-태지역 관광 수요 증가로 인한 서비스 부문 회복세, 건설자제운송비율 증가, 컨테이너 실적은 안정적(전년 대비 0.5% 감소한 3,729만 TEU)으로 유지 <div>○ 팬데믹 이후 APEC 회원국의 항만개발 주요 현황</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 항만건설용 부지 부족, 운영 효율화를 위해 운영사 간 협력 및 자원 최적화 등을 추진, 자율주행차량 1~2년 내 도입 예상 - (한국)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항만 기본계획 수립, 항만 내 장비 친환경화, 관련기술 R&D 등), 항만 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자동화 및 디지털화, 재난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항만 기능고도화(LNG 벙커링, 선박수리조선 등) 등 추진 - (말레이시아) 말라카 해협(포트클랑, 탄중펠레파스항, 싱가포르항 위치)에서 항만경쟁력 확보를 위해 캐리 아일랜드(Carey Island)프로젝트 추진, '25년 공사시작, '55년 단계적 개장 예정 - (싱가포르) '50년 넷제로 실현을 위해 항만중심 공급망 생태계 구축, 노후 항만시설 개선, 디지털화 추진 - (베트남) 현재 엔타이항, 하이퐁항 포화상태로 향후 개발 계획이며 심수항개발을 통해 해운얼라이언스 기항 기대 <div>○ 2024년 APSN 포럼 주제 선정</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도 탈탄소화 및 디지털화에 이어 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공급망의 친환경화 구현을 위한 'Green Shipping Corridor'를 채택, 현재 APEC 회원국의 녹색해운항로 구축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한 발전 방향 제시 기대 <div>○ APSN 회원국 협력 증진방안</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항만-물류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해마다 연구주제(글로벌 주요 이슈 관련) 발굴, 데이터 공유, 공동연구 수행, APSN 포럼에 각국의 항만물류분야 주요 연구기관 연구결과 공유 및 토론 세션 신설, 회원국 물류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등 제안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12차 Advisory Board Meeting</div> 
업무②	10.26.(목) 오후(14:00~17:00) 15차 APSN 이사회 회의 참석(Open Session)
수행계획	<p>□ 이사회(Open session) 안건 논의</p> <p>- 주요안건: 당일 회람</p> <p>※ 이사회(APSN Council)는 Open 세션과 Closed 세션으로 구분하여 양일에 걸쳐 진행</p>
수행결과	<p>□ 15차 APSN 이사회 회의 참석(Open Session) ※온/오프라인 병행</p> <p>■ 참석자: 한국(KMI 김세원 부연구위원, 김가현 전문연구원)외 APSN 이사회 회원국(캐나다, 중국,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미국, 베트남) 항만·교통 분야 정부 관계자, APSN 이사회 위원, 업계 관계자, APSN 사무국 관계자 등</p> <p>■ 주요내용</p> <p>○ APSN 주요 활동</p> <p>- 15년전 12명의 이사회 구성원을 시작으로 현재 18개 APEC 회원국의 60명의 자문위원, 회원국 항만 및 항만 관련 산업 100개 이상의 기업 및 사회단체 회원으로 참여확대, 최근 IAPH(국제항만협회)와 MOU 체결 진행중</p> <p>- 2023년 7월, 중국수운과학연구원(WTI)과 공동으로 중국 Ningbo에서 워크숍("Port and MASS: Practices, Challenges and Harmonization")개최, 자율운항선박(MASS) 및 항만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 MASS관련 최신연구 및 시범 운영 현황, 지능형 선박의 거버넌스, 표준화, 정책 및 관련 기술, 항만과 지능형 선박의 연계 등에 관한 주제 발표 및 논의 진행</p> <p>○ APSN 항만연구센터 주요 연구결과</p> <p>- (APEC 항만의 항만서비스 품질 및 성과 우수사례 연구(Best Practices on Port Service Quality and Performance for APEC Ports) 2019~2020) APEC 국가 19개 항만 사례 수집(대부분 중국항만 사례), 항만운영 및 화물처리의 효율성 및 경제성, 디지털화와 에너지 전환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적용 중요성 강조</p> <p>- (핵심연결성 종합지수 개발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on Creating a Comprehensive Port Connectivity Index), 2019~2020) 아-태 연결성 청사진에 기반, APEC 공동체의 포괄적인 연결성 촉진 및 평가를 위한 정책 대안 제공 목적, 정기선 운송 연결성 지수(LSCI) 및 물류성과지수(LPI) 평가 방법론을 바탕으로 16개로 구성된 지수개발(컨테이너 우선 항만에만 적용가능)</p> <p>- (항만 배출량 인벤토리 개발(Methods for Developing a Port Emission Inventory), 2020~2022) 입항 선박 배출량 측정을 위한 방법론 평가,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수집 및 인벤토리 추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기대,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항만 경계 범위 지정과 배출원 포함 종류 등에 대한 합의 필요</p> <p>○ 2023 APSN 그린포트 어워드(Green Port Award System, GPAS)</p> <p>- 해운항만분야 녹색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GPAS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영향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p>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PAS가 공식 출범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APEC 10개 회원국의 53개 항만이 GPAS 어워드를 수상, 2023년에는 APEC 7개 회원국의 13개 항만이 신규 수상 항만으로 지정 • (말레이시아) 빈톨루항만청, 포트클랑, 케르티항만 운영사(Kertih Port Sdn. Bhd.), (인도네시아) 페르타마 트랜드 컨티넨탈 터미널, 페트로키미아 그레스항, (홍콩) 카이탁 크루즈 터미널, (태국) 램차방항, (중국) 난징 톤탄 컨테이너터미널, 칭다오 치엔완 컨테이너터미널, 샤먼컨테이너터미널 (필리핀) 바탕가스항, 수리가오항, (페루) 포르투아리오 파라카스 터미널 - GPAS 수상 항만들은 항만운영 디지털화 및 지능형 물류플랫폼 구축, 태양광발전, 전기동력사용, 기타 에너지 저감 활동 등을 수행 - GPAS 권위와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 및 수상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APEC 회원국 정책의 다양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 ○ 12차 자문위원회 회의 안건 결과보고 및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EC 지역의 경제 및 무역 발전 상황, 팬데믹 이후 APEC 회원국의 항만개발 현황, 2024년 APSN 포럼 주제 논의결과(Green Shipping Corridor), APSN 회원국 협력 증진방안 등
	<p style="text-align: center;">15차 APSN 이사회 회의(Open Session)</p> 
업무③	10.27.(금) 오전(09:00~12:00) 15차 APSN 이사회 회의 참석(Closed Session)
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Closed session) 안건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김세원 부연구위원, 김가현 전문연구원, APEC 회원국 APSN 이사회 담당자 - 주요안건: 당일 회람, 일부 참고 자료는 사전 공유(2024년 계획 세부내용 및 예산안 등) ※ 이사회(APSN Council)는 Open 세션과 Closed 세션으로 구분하여 양일에 걸쳐 진행
수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차 APSN 이사회 회의 참석(Closed Session) ※온/오프라인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한국(KMI 김세원 부연구위원, 김가현 전문연구원)외 APSN 이사회 회원국(캐나다, 중국,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미국, 베트남) 항만·교통 분야 정부 관계자, APSN 이사회 위원, APSN 사무국 관계자 등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장 및 부회장 선출) APSN 협의회 회장 Ms. Sonya Read(2년 임기), 제1부회장(1st Vice President) Capt. Mohamad Halim Ahmed(Malaysia), 제2부회장(2nd Vice President) Mr. Jiravich Klomperee(Thailand) 선출, 그 외 APSN 사무총장으로 Dr. Li Qing(China) 임명 - (APSN 사무총장 2023년 업무보고) 특히 PAT(태국항만공사)와 협력을 통해 저탄소 및 디지털 미래를 위한 혁신적 항만에 관한 APSN 포럼 개최, 이를 바탕으로 APEC 항만 및 항만 관련 산업의 역량 강화를 강화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플랫폼을 제공한 것을 강조 - (기타 계획 발표) APSN 5개년 전략계획(2024-2028), 2024년 APSN 실행계획, 2024년 APSN 예산안, APEC 항만연구센터 및 APSN 그린포트 어워드(GPAS) 개선(안), 발표, 2024년 APSN 행사 개최 예정지(말레이시아) 및 일정(11월 중순) 결정 등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div style="text-align: center;"> APSN 이사회 회의(Closed Session) 참석자 단체사진 </div> 
업무④	10.27.(금) 오후 APSN 담당자 업무협의
수행계획	<div>□ 주요 안건</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MI-APSN 협력방안 논의 · APSN Port Study Center를 통한 연구과제 발굴 방안 논의
수행결과	<div>□ APSN 담당자 업무협의</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KMI) 김세원 부연구위원, 김가현 전문연구원, (APSN Port Study Center) Lu Cheng (Director), (APSN) Ma Yanyan(Deputy Secretary-General), Li Qing(Acting Secretary) 등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SN Port Study Center를 통한 협력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SN 항만연구센터는 APSN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기관으로, APSN의 사무국 산하에 설치, 주로 APSN 5개년 전략 계획 및 연간 실행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 조사 및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수행함 - 현재 APSN 항만연구센터는 중국교통운수부 산하 수운과학연구원(China Waterborne Transport Research Institute, WTI)과 함께 대부분의 연구를 진행 - 특정 기관과 협력이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연구 및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은 사무국, 위원회(자문위원회 및 이사회) 회원, 비회원국의 조직/기업/기관 모두 가능하며 접수처는 APSN 항만연구센터임 - 해당 제안이 APSN의 목표에 기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진행 가능, 연구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APSN 항만연구센터 담당자와 별도 협의필요 - 연구기간은 연구 주제의 시급성에 따라 상이(최소 3개월), 대부분 1년정도를 연구기간으로 설정, 다만 중국과 연구협력 진행 시에는 중국 내 기타 여건(법제도 등)변화 또한 중요하므로 향후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해 보임
업무⑤	10.30.(월) 오전 UNESCAP 담당자 업무협의
수행계획	<div>□ 주요 내용</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태지역 개도국과 항만분야 협력 강화 및 기업진출 지원 연구용역」 성과물 발간 계획 논의 · 11.29~30. 개최 예정인 UNESCAP "Capacity Building workshop on Port Digitalization towards Smart Ports" 지원 방안논의(해양수산부 축사, KMI 발표 계획)
수행결과	<div>□ UNESCAP 담당자 업무협의</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KMI) 김세원 부연구위원, (UNESCAP) Weimin, Ren 교통국장, 김수엽 경제담당관, 김규섭 과장, (해양수산부) 김원중 항만연안재생과장, (World Bank) Ninan Biju 시니어 스페셜리스트, (절강대학교) 이태우 교수, (태국 항만청) Praew Ritthirungrat 디렉터 ■ 주요 논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분야 친환경 연료 사용 동향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해운분야의 미래 친환경 연료는 아직 명확하지 않음. 암모니아, 메탄올, 수소 등 많은 대안연료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연료가 정해지지 않음. 현재 싱가포르에서도 미래의 해운연료나 이에 따른, 항만에서의 벙커링 체계에 대한 명확한 대안은 없는 실정임 - 싱가포르에서 MPA, 주룽항 및 해운선사들이 참여하여 Castor Initiative를 구축하여 친환경 연료 개발과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MAN 등 엔진 제조기업, 삼성중공업과 같은 조선소들도 함께 참여하여 미래 선박 친환경 연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 - 바이오연료도 생산되는 그린메탄올도 주목받고 있으며, 사탕수수 등 바이오연료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이 주목받고 있음 <p>○ Green Shipping Corridor(GSC) & Green Logistics Corridor(GL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O가 2050년 해운분야 넷제로를 선포, 유럽 항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녹색해운항로 확대 필요, ESCAP 역내 회원국 항만 간의 녹색해운항로 구축 촉진 필요. 특히 한국과 아세안 국가(태국 람차방항 등)는 거리상으로도 적절한 거리로 테스트항로로 구축하기 좋을 것임 -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 타코마항 간 GSC구축 추진 중, 타당성 프로젝트도 진행중 - (ESCAP 교통국장) 현재의 GSC도 좋지만, 해운운송 부분에 국한되어있어 해운(GSC)와 육상운송부분까지 포함하는 "Green Logistics Corridor(GLC)"를 제안하면 좋을 것 같음. 이를통해 해운뿐만 아니라, 육상운송까지 포함한 교통부분의 친환경화를 촉진 기대. 현재의 녹색해운항로에 육상교통수단 등을 추가하는 개념임. 관련하여, World Bank나 각국 정부에서도 지지한다면, ESCAP을 중심으로 GLC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형성해 볼 수 있을 것임. 내년이나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임 <p>○ 「아태지역 개도국과 항만분야 협력 강화 및 기업진출 지원 연구용역」 성과물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CAP 교통국장) 현재 ESCAP 교통국 내에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준높은 연구보고서 작성에는 한계.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KMI와 ESCAP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음. KMI에서 나오는 물동량 전망 등 많은 정례적인 연구 결과물 첨부 필요 - (KMI) 올해부터 ESCAP과 함께 정례적인 연차보고서를 발간계획이며, 현재 ESCAP과 협의하여 집필 중, KMI에서 아태지역 전체의 물동량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항만서비스지표 등 정례적인 분석 결과는 있으며 이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
업무⑥	10.30.(월) 오후 제6회 UNESCAP 오션데이 참석
수행계획	<p>□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회 오션데이(Asia-Pacific Day for the Ocean) 오프닝 세션 및 토론회(Interactive Dialogue) 참석 ·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항만개발 거버넌스 논의(토론회B)
수행결과	<p>□ 제6회 UNESCAP 오션데이 참석 및 발표</p> <p>■ 행사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기간) '23.10.30(월), 14:00~17:00 ○ (개최장소) 태국 방콕(온/오프라인 병행) UNESCAP 컨퍼런스룸 및 회의실 ○ (주최) UNESCAP <p>■ 참석자: (KMI) 김세원 부연구위원, (UNESCAP) Weimin, Ren 교통국장, 김수엽 경제담당관, 김규섭 과장, (해양수산부) 김원중 항만연안재생과장, (World Bank) Ninan Biju 시니어 스페셜리스트, (절강대학교) 이태우 교수 외 관련 회원국 정부, 국제기구, 학계 전문가 등</p> <p>■ 주요내용 :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항만개발 거버넌스 논의(토론회B)</p>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발표1)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항만개발과 항만 거버넌스의 조화 및 정책적 시사점
(Harmonizing Port Governance with Sustainable Port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and Policy Implementation) : 절강 대학교 이태우 교수
 - 지속가능한 미래의 항만은 항만의 생산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일어난 물류체계의 변화, 그린포트, 스마트 포트, 녹색해운회랑(Green Shipping Corridor)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
 - 또한, 항만개발을 전반적인 경제, 사회, 지정학적 시스템을 고려한 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언급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항만개발에 대한 참여 확대, 코로나-19 대응, 디지털화, 탄소중립을 고려한 항만개발 추세의 변화 반영, 혁신적인 기술과 인프라 정보화 구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강조함
 - 항만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항만개발의 조화를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이 요구됨
 - 국가 경제에 있어 항만의 전략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항만개발 정책을 수립해야 함
 - 항만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자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핵심성과지표(KPI) 개발/도입이 필요함
 - 6세대 항만 모델에 맞춰 데이터 기반의 융합 기술(그린 포트+디지털 포트)을 적용해야 함
 - 녹색해운회랑 구축을 위한 국가·지역 간 협력·연대가 필요함
- (발표2) 한국의 항만개발 거버넌스(Port Governance in the Republic of Korea) : KMI 항만정책·운영 연구실 김세원 실장
 - 한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항만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 결과를 공유
 - (일본) 전략국제거점항만, 국제거점항만, 주요 항만, 지역 항만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항만 관리
 - (중국) 허브 항만, 지역 주요 항만, 일반 항만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01년 이후 지방정부의 책임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환
 - (미국) 주 정부, 시 정부, 민간 기업 등 관리 책임을 맡은 기관을 기준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항만 관리 시스템은 연방법을 기반으로 운영 규칙 및 규정은 주 및 시에서 제정
 - 한국은 역할과 기능에 따라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되며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 항만재개발 및 주변 지역 개발에 관한 법률 등 항만 관리 및 개발을 위한 법적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또한 항만 발전 촉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10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항만기본계획의 중요성 강조
 - 항만 건설 프로젝트와 한국의 항만 시설 유지·관리 프로세스 설명, 해상무역의 주요 관문인 항만 인프라 개발 및 관리의 중요성 강조
 - 항만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항만개발과 관련한 지역 주민 및 정부의 참여 욕구 증가, 관련 이해관계자의 원활한 참여를 위한 프로세스 강화의 필요성, 권한 이양, 재정적 한계 등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해결해야 하는 도전과제의 복잡성(complexity)을 설명
-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항만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Policy Recommendations for Sustainable Port Developments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 Focusing on Port Governance) : (발표) WB 해상교통 전문가 니난 비주 옴만(Ninan Biju Oommen)
 - 동남아시아 지역의 항만 거버넌스 중 우선시 되는 것은 지속가능성으로 높은 물류비용, 경쟁,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분석, 운송 연결성, 효율성, 탄력성 및 사회 경제적 개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통합전략개발계획* 수립, 제도적 규제 체계 수립, 자금조달 전략 마련, 검토 및 최적화 전략 도출 등 강조
- 복합운송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계성, 선박의 에너지 효율화, 물류 효율성, 항만 인프라의 현대화, 기후대응능력 향상 등
- 세계은행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정책 입안자 및 실무자들에게 효과적인 항만 서비스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 개혁 툴킷(Port Reform Toolkit)을 발간하고 있음을 설명함
- 이번 세 번째 버전(3rd Edition)에서는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핵심에 대한 대응,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 항만의 탈탄소화·디지털화·자동화 등 공간 및 운영 효율성과 관련한 새로운 모듈에 대해 다루고 있음

오션데이 오프닝 행사 사진



UNESCAP 및 한국측 참석자 단체사진



그룹회의 B사진(인사말씀)



그룹회의 B사진(발표 및 토론)

